

쌍산이, 보현이, 지장이가 먼저 손님을 맞았다. 이 불재(耳佛齋) 찌리문을 들어서자, 나뭇잎이 바람결 따라 귀를 씻어내는 소리가 들린다. 박하사탕을 먹은 듯 바람은 코를 뚫고 푸른 산세는 눈을 씻어 냈다. 소리는 막혔던 가슴을 펴 놓았다.

개들이 짓는 소리를 듣고 소설가 정찬주(60) 씨와 그의 아내인 도예가 박명숙(57) 씨가 찌리문 밖까지 손님을 맞으러 나왔다. 정찬주 씨는 작품을 쓰다가, 그의 아내는 도예 작업을 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초록색과 연두색의 생활한복이 잘 어울리는 부부는 걸치레 없는 인사를 건넸다.

소설가 정찬주 씨의 집필공간 이불재에서 5월 31일 만났다. 순천 쌍봉사에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불재'는 쌍봉사의 암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마당에 자리 잡은 못에는 연(蓮)이 꽃을 피우고 태산목, 소나무, 해당화, 함박꽃들은 "알아서 자란" 모습이었으나 어느 것 하나 거슬림이 없었다. 꽃과 나무는 소유물이 아니었다. 부부는 그들을 함께 숨쉬는 동반자로 품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을 잠시 빌렸기에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정찬주 작가의 생각이 펼쳐진 공간이었다.

2001년 정찬주 씨는 25년의 치열했던 서울 생활을 접고 쌍봉사가 보이는 순천으로 낙향했다. 눈이었던 공간을 집터로 바꾸고 정성스럽게 집을 지어 올리고는 직접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루는 곳 '이불재'라 이름 지었다. 눈을 집터로 만든다고 했을 때 동네 주민들은 걱정을 했지만 정찬주 씨는 명당을 찾아 터의 덕을 보려고 하기 보다는, 터를 잡아 사는 사람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집을 지어 올렸다.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명당이라고 한다.

온전하게 살겠다는 의지로 내려온 이불재에서 정찬주 작가는 소설 <니르바나의 미소> <인연>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대백제왕> <만행> 등과 산문집 <암자로 가는 길 2>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선방 가는 길> <돈황 가는 길> <정찬주의 차기행> <뜰 앞의 잣나무>, 어른을 위한 동화 <눈부처>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정 작가의 집필은 나날이 왕성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쓴 <무소유>가 13만권 판매대 불교계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의 작은 사찰 43곳을 순례하며 느낀 감상을 엮은 <절은 절하는 곳이다>, 법정 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떠난 순례기행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본지에 연재했던 '정찬주의 행복한 선여행'을 엮은 <행복한 선 여행>을 6월 15일 출판했다. 집필 활동에 숨 고를 틈 없을 것 같지만, 그는 늘 여유로운 모습이다. 오히려 급한 쪽은 출판사였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전남 순천 이불재에서 만난 정찬주 씨

으로서 저자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아,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불재를 찾는 이가 많다던데, 집필 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독자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 오히려 감사하다. 지금 입고 있는 생활 한복도 독자들을 위해 입기 시작했다. 이불재에 내려 와서 4년 정도는 캐주얼 복장이었는데 독자들이 "작가님은 이런 복장인줄 알았는데"라며 실망하기에 생활한복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다. 독자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양복을 입었을 때를 떠올리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진다. 습(習)이 떨어지면 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불재는 글을 쓰기 위한 작업실이 아니라서 점이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 것도 아니다. 은거는 더욱 아니다. 은거는 내 성장이 맞지 않는다. 인도 브라만 계급에는 인간기(林間期)가 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사회에 일장 부분 희망을 한 후에 자연 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기간이 있다. 남은 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온 것이다."

그럼 글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글은 내 삶이고 소통의 수단이다. 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적은 없다. 내가 알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썼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주면 금상첨화고 읽어주지 않으면 '시절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호응이 없다고 해서 조조해 진적은 없었다. 나는 계속 글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것은 수행이다. 오늘 수행이 시원찮다고 해서 다음날 수행을 포기하지 않듯이 계속 쓸 뿐이다. 순일하게 이어질 때 수행의 의미가 있다. 글 쓰는 작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대한 압박관념도 없다.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늘 '나의 대표작은 내일 쓴 작품이다'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갈 뿐이다. 이불재로 내려 온 후 세속과는 멀어졌지만 자연과는 가까워지고 건강, 집중력도 좋아져 글 쓰는 분량이 서울에서 비해 조금은 더 늘었다."



나의 대표작은 바로 내일 쓴 작품입니다

다작가(多作家)가 된 것 같다.

"책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다. 이번 단행본은 조금 늦게 내려고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 서둘렀고 나도 시절 인연이 그러하니까 보다고 생각해 허락했다. 평생 책 100권을 쓸 계획이다. 지금도 다양한 글들을 써 왔다. 내년에는 인도로 가서 아쇼카 대왕의 루트를 따라가 글을 써 볼 계획이다."

수불 스님과 함께했던 선 여행은 어땠나.

"생생한 공간의 현장이었다. 선종 사찰 순례는 유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활구법문을 하는 선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눈을 돌려 마조·백장·황벽·임제 스님이 계셨던 중국 선종 사찰을 가보니 선지식을 직접 만난 듯했다. 선어록을 책꽂이에 꽂아 두고 30년 동안 틈만 나면 바로바로 읽어 왔지만 선종 사찰의 순례에서 들은 선어록의 느낌은 굉장히 달랐다. 수불 스님은 한·중 수교 이후부터 70회 정도 중

국 선종사찰을 다니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받아 온 것 같았다. 현장에서 듣는 수불 스님의 선어록 강의는 생동감을 넘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어록 법문을 1000회 가량한 스님의 생생한 법문의 힘이 컸다.

선종사찰 순례는 승속을 불문하고 재가불자나 스님들이 그동안의 공부를 옛 선사들에게 짐목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볼 것을 권한다. 순례 자체가 수행이다. 순례 중 자기 점검은 진짜 자기의 양심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지 스며들 한 치의 틈도 없다."

평소 집필은 어떻게 하나.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3-5시에 일어나 아침 공양 전까지 집중적으로 글을 쓴다. 공양 이후 오전 시간에는 아침에 썼던 글을 되고하고, 오후에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차를 마시고 약간의 농사일도 한다. 글 쓰는 것은 나에게 정진이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선방이나 법당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일타·경봉·성철·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을 쓸 때에는 스님들의 가사 장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참 행복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스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 쓴 글은 독자들의 반응도 좋다. 독자들에게 행복한 기운이 전해졌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전달 됐기 때문이라 믿는다. 저자거리 사람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내 행복과 불행도 지구 반대편 어디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다."

혼자서 수행처럼 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있었다. 처음에 내려와서는 벽에 호미를 걸어놓고 살았다. 농부들이 밭에서 일할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경계의 표시를 두고 스스로 게으름을 멀리 했다. 또 일과 표를 만들어 수행생처럼 O X 표시로 정확하게 체크하며 살기도 했다.

25년 넘게 서울에서의 치열한 삶을 경험한 사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내인 박명숙 씨는 다과를 준비해 차리고 대화도 함께 나눴다. 아내는 정찬주 씨를 "글 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쌍봉사에 가서 108배를 하고 작업실에서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닦는다. 집터 한 쪽에는 아내 박명숙 씨의 작업장과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 박 씨는 이번 선 여행에도 동행했다. 동행 후 박명숙 씨는 수불 스님의 법문을 직접 녹취하고, 오타자도 확인한다고 한다. 함께 수행하는 이상적인 부부상이다.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불교학회 활동을 했다. 신심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취향이 맞아서 다녔던 것 같다. 대학 시절이었던 1970년대에는 데모가 잦아 학교생활이 거의 힘들었다. 습작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친척의 소개를 받아 쌍봉사로 오게 됐다. 그때는 폐사 직전의 사찰이었는데 주지

스님과 공양주 보살, 나 이렇게 세 명이 다였다. 어느 날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어깨며 손바닥에 앉은 먼지를 닦다가 미소를 짓는 부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됐다. 그 미소가 지금의 나에게 이르게 했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갔을 때의 세계에서 짓는 미소라고 느껴졌다. 한 순간의 느낌이 전율이 흘렀다. 마치 내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았다. 마음이 참 풍요로웠다. 습작을 위한 길이었으나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쌍봉사를 떠나며 작가로 성공하면 반드시 쌍봉사 중흥에 일조하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후 상명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조계종에서 <불교사상> 창간한다는 공고로 불교를 보고 조계종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교편을 놓고 직장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다. 월급은 반으로 줄고, 매일 12시까지 죽도록 일했지만 그때 불교 서적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정찬주 씨는 이후 월간지 '샘터'사에서 일을 하면서 <샘터>에 칼럼을 연재하던 법정 스님을 만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정찬주 씨의 은사로 1991년 그에게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직접 지어주고 오계를 내렸다. 법정 스님의 일대기와 수행처를 따라가 쓴 그의 글들은 스승을 그리는 제자의 마음이 담긴 책이었다. 정찬주 씨는 지금도 스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해진다며 다양한 사연을 소개했다. 한 번은 "가정방문 한 번 가겠다"며 법정 스님이 직접 이불재에 찾아온 이야기며, 제자를 위해 따뜻한 내복을 선물해 준 이야기, 두 딸이 학교에 입학할 때 일지장을 선물해 준 일을 떠올렸다.

도시 생활과 이곳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유지가 되는 것은 리더 몇 명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아름다운 저 산을 보라. 한 두 그루의 나무가 꾸민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무가 저 속에 어우러져 화연의 세계를 이루고 있기에 산이 아름다운 것이다. 밤하늘이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행성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이 제자리에 반짝거리고 있기에 아름답더라.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잠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반짝이는 것이라는 것을 산 속에 있으면서 알게 됐다. 어렵지 않은 것을 여기 와서 나 알게 됐다.

서울 생활을 할 때는 백과사전 속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곳에서는 생활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됐다. 또 자연 속에서 살다보니까 화내는 마음, 남의 지식이 내 것인 양 착각했던 어리석음, 욕심내고 집착했던 마음이 바람에 땀이 식듯 저절로 사라지더라. 예전에는 비분강개파였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 이불재로 온 것은 잘한 것 같다. 인생에 있어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내가 잘 한 일로 꼽을 수 있다."

불교를 소재로 하는 작가가 많지 않아 보인다. 후학 양성의 계획은?

"불교를 소재로 글을 쓰는 일은 상상과 감각만으로는 어렵다. 불교적인 지식을 인생에서 녹여 내야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전을 여러 권 읽고, 공부해야한다. 후학을 양성할 계획도 있지만 당분간은 작품 활동에 몰입할 계획이다."



소설가 정찬주 씨(오른쪽)와 그의 아내인 박명숙 씨가 사랑방 '무염산방(無染山房)' 앞 뒷마루에 다정히 앉았다.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스님의 수행처

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훌거운 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들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정찬주의 마음기행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